

걸음마기 母-兒 놀이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Enhancing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Mother and Toddler in Play Class*

김영옥(Young Ok Kim)¹⁾

박성연(Seong Yeon Park)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arent education program enhancing mother's positive interactions in the context of mother-toddler play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were 47 pairs of toddlers and their mother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 treatment or a control group. Both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participated in the 8 sessions of the play class. Only treatment groups received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during the sessions. Data were analysed by t-tests using SPSS 15.0. Results showed that (1) the mothers' positive interactions have been increased; (2)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leasure have also been increased, whereas the parenting stresses were decreased in the treatment groups. In conclusion, this parent education program in the play session was effective in helping the mothers' positive interactions and perceptions on parenting toddlers.

Key Words : 부모교육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 걸음마기 아동(toddler), 양육(parenting), 놀이(play), 긍정적 상호작용(positive interaction).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Child Development,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I. 서 론

생후 18~36개월의 걸음마기 영아는 초기 영아기(0~17개월)에 비해 현저하게 움직임이 많아지고 언어표현이 풍부해지면서 자기주장 또한 강해진다(박성연·신영아, 2006; Keenan & Wakschlag, 2000). 걸음마기 영아의 이러한 행동 특성은 주변을 탐색하여 학습능력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걸음마기의 자연스런 발달과정이지만(Larzelere, Amberson, & Martin, 1992), 어머니로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따라서 자율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칫 강압적이고, 통제·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기 쉽다(Belsky, 1996).

한편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역할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넘쳐나는 정보들은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한다(Schaack, 2009). 또한 조기 영재교육의 열풍은 일부 부모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자녀의 지적발달만을 강조하게 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이상희, 2003; 이영·김은기,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양육 가치관을 형성함은 물론 자녀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과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방식을 모색함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더욱 바람직한 양육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과정과 발달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지도 방법이나 양육 기술의 훈련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들에게 특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걸음마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부족하다(도현심·이선희·오유리·김경미·최규리·강나현, 2009).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문제·장애·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등의 특정대상 가정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일반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이상희, 2003).

서구권 국가에서는 이미 걸음마기 부모의 양육역할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의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왔다. 보다 어린 시기에 개입하는 것이 향후 발달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Bloom, 1964; Bronfenbrenner, 1979; Brooks-Gunn, 2004)를 근거로 미국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Early Head Start Program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초기 중재프로그램은 특정한 문제가정을 개별 방문하는 형태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그룹 역동성의 효과가 증명되고 일반가정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부터(Petersson, 2003)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그룹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Positive Parenting Program (Triple-P)(Leung, Snaders & Leung, 2003), The Parents as First Teacher's Program(PAFT)(Farquahar, 2003), COPEing with Toddler Behavior(Niccols, 2009) 등의 그룹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위치한 대학이나 지역 센터를 기반으로 생겨나 운영되고 있다(Fielden & Gallagher, 2008). 또한 최근에는 Filial Therapy,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 등 문제가 있는 아동의 조기 중재를 목적으로 개발된 놀이치료 프로그램들의 장점을 살려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서구에서는 걸음마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보급되어 왔으며 장·단기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양육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룹 형태의 놀이 상호작용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자는 바람직한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을 증진함은 물론 자녀 양육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Dumaret, Kuntz, & Titran, 2009), 자신감을 갖게 되며(Wagner, Spike, & Linn., 2002; Owen & Mulvihill, 1994), 나아가 어머니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이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Fielden et al., 2008). 또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형태의 상호작용 중심 프로그램들은 걸음마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와 분리하여 혼자서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비슷한 상황의 어머니들이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거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Fielden et al.,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아동을 둔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양육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실습을 병행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반하여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녀와 함께하는 상호작용 중심의 어머니-자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적다. 그러나 어머니-자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높아서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센터와 종교기관 등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남궁혜영, 2001). 하지만 부모교육을 위

한 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교사의 자질 부족, 지나친 상업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정의영, 2003). 다만 일부 대학 기관들에서 걸음마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실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김효진, 2005; 이영·김은기, 2000).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하고 부모교육을 병행한다는 점에서도 훌륭하나, 그러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결과가 놀이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인한 것인지 부모교육의 효과인지 구분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아 놀이 상호작용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분리하여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 어머니-자녀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실험집단에만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의 세심한 실험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발달이론과 부모교육이론 및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모-아 놀이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키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모-아 놀이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가?
- <연구문제 2> 모-아 놀이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지각(양육효능감, 양육즐거움, 양육스트레스)을 변화시키는가?

<표 1> 연구의 설계

집단	사전 검사	놀이 프로그램	부모교육	사후 검사
실험집단	○	○	○	○
통제집단	○	○		○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와 대상 선정

본 연구의 설계는 표 1과 같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방법을 기초로 하였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중류층 가구가 밀집한 D, E, K, Y구의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문화센터 세 곳의 17~35개월의 걸음마기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 47쌍이다. 연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어머니-영아놀이 프로그램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각 놀이그룹 어머니들에게 실험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D와 Y구는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실험집단으로, E와 K구에서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특별히 걸음마기 영아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이며, 기관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만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출석률이 70% 미만인 사례와 사전·사후 상호작용 관찰시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후 질문지 중 미회수가 있는 경우 등의 자료는 자료분석 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실험집단에는 27쌍, 통제집단에는 20쌍이 포함되었다. 실험집단은 각각 7명, 12명, 8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제집단은 각각 11명과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연구대상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아동의 평균 연령은 22.2개월(실험집단 23.6개월, 통제집단 20.9개월)이었으며, 실험집단에서는 남아가 통제집단에서는 여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실험집단 : 남 15명, 여 12명, 통제집단 : 남 9명, 여 11명). 또한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집단은 외동이가 보다 많았다(실험집단 55.6%, 통제집단 65%).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두 집단 모두 32.7세로 나타났다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실험집단 77.7%, 통제집단 85%).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χ^2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판명되었다.

2. 프로그램의 구성

1) 이론적 근거

걸음마기는 걷기 시작하게 되면서 신체적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며 생애 첫 발달적 전환점을 맞게 되는 중요한 시기(Dishion & Stormshak, 2007)이다. 몇몇 학자들은 걸음마기에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써 아동의 행동 조절이 걸음마기에 출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Angold & Egger, 2007; Frick, 2001). 따라서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초기 영아기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조절을 위한 어머니의 적절한 훈

육과 긍정적인 통제를 고려한 양육행동이 필요하다고 본다(Kochanska et al., 1998).

걸음마기의 발달적 중요성에 따라 바람직한 어머니의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주요 부모교육 이론인 Dreikurs의 부모의 긍정적 행동 변화(Dreikurs, Grunwald & Pepper, 1998), Ginott(1969)의 인본주의, 부모효율성 훈련(Gordon, 1980)과 놀이이론 등을 근거로 삼았다.

2)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실현의 대상은 걸음마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걸음마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바람직한 모-자녀간 상호작용 기술을 놀이상황에서 직접 실습해볼 수 있도록 하여 양육자로서의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의 즐거움을 복돋우며, 양육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어머니-영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는 걸음마기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부성숙, 2006)와 그룹 부모교육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시간의 목표(Campbell & Palm, 2004)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놀이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즐겁고 가치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둘째, 어머니가 걸음마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조절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셋째,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양육기술을 연습하도록 한다. 넷째, 교사가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직접 관찰하며 어머니가 수행할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도록 한다. 다섯째, 어머니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여섯

째, 양육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 및 자녀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킨다. 일곱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또래 친구와 어머니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3)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본 프로그램은 매주 1회 45분 씩 총 8회기로 구성되었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전반부인 1~4회기에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적인 양육기술과 놀이 상호작용을 훈련하고, 후반부인 5~8회기에는 걸음마기 발달에 따른 어머니 역할과 관련하여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세부 내용구성을 위해서는 영아기의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어머니 지침서(박성연·유은희·한상미, 2002)와 보드윈의 자녀교육 시리즈(Bowdoin, 2000)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회기에 따른 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4)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참여 놀이 프로그램의 각 놀이 그룹은 최대 12쌍의 어머니와 걸음마기 자녀,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교사로 구성된다. 교실환경은 신발을 신지 않고,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5평 내외의 넓고 안전하며 쾌적한 공간으로 준비한다. 총 8회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 회기 전에 어머니에게 유인물 형태로 제공하고, 이후 모두 모아서 워크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한 회기 프로그램의 진행은 약 45분 정도 소요되며, 그 날에 준비된 놀이교구의 특성, 아동과 어머니의 흥미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표 2> 걸음마기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회기	단계	교육주제	부모교육 내용	놀이활동
1	전반부	바르게 칭찬하기	•바람직한 칭찬 기술의 사용 •자기 긍정의 느낌 갖도록 배려하기	•작은 상자 쌓기 •큰 기차 놀이
2		놀이 따라가기	•자녀에게 놀이를 관찰하며 따라가기 •자녀가 놀이 주도에 민감하게 반응	•개구리 흉내내기 •밸런스 기르기
3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본 내용	일관성	•명확한 기준, 단호하게 제한하기 •어머니의 권위 세우기	•악어퍼펫 •빌리보 교구놀이
4	후반부	엄마도 즐거운 놀이	•자녀의 놀라운 창의적 능력의 발견 •즐거운 표현과 놀이 몰입	•다양한 악기탐색 •신축 패라슈트
5		심리적 유대감	•전적인 사랑과 애정의 표현 •기본적 신뢰와 안전기반	•링걸기 •대형 패라슈트
6		자율성 기르기	•걸음마기의 발달 과업 : 자율성 •적절한 책임 부여, 스스로의 기회 포착	•곤충채집하기 •메뚜기처럼 뛰기
7	걸음마기 발달과 관련한 긍정적 양육기술	감정조절 도와주기	•자녀가 감정조절이 안되어 화를 뱌을 이해 •자녀의 욕구가 바람직하게 수용되도록 도움	•얼굴표정 꾸미기 •가방안에 숨여라
8		어머니 자신감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녀양육의 자신감을 북돋운다.	•수박공 탐색 •튜브놀이

흐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첫째, 부모교육 주제소개(5분 소요)는 그 날의 부모교육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으로, 활동 중에 특히 유의하면서 연습할 긍정적 상호작용의 방법이나 양육기술의 예시가 소개된다. 둘째, 도입(인사노래-출석노래 - 몸풀기 체조)(7분 소요), 전개(작은 움직임을 위한 놀이-달리기-큰 움직임을 위한 놀이)(26분 소요) 순으로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와의 친밀한 신체적 접촉과 놀이를 통해 민감성을 높이며, 자녀의 놀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반응하면서 그 날의 부모교육 주제와 관련된 훈련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회기의 “바르게 칭찬하기”의 경우, 출석노래를 시작하기 전 교사는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이름을 호명될 때, 자녀를 도와서 대답을 함께 하거나 팔을 들어 올리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교사와 그룹 구성원들의 환영의 박수를 받게

될 때, 어머니는 자녀를 꼭 안으며 칭찬과 사랑스러운 엄마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 교구를 이용한 놀이 시간에 어머니는 자녀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연습해 보게 된다. 교구를 정리하는 시간에는 자녀가 스스로 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정리 후에는 자녀에게 정리를 잘 해서 엄마가 기쁘다고 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실습 시간 중에 어머니들은 때때로 다른 팀을 관찰하거나 교사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마무리 시간(7분 소요)으로 모든 참여자를 격려하고 서로 간의 유대를 북돋우며, 그 날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회기를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히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실험집단의 교사는 각 회기의 부모교육 내용을 소개하고, 실습을 위한 놀이 상호작용을 진행한다. 교사는 어머니

의 행동을 관찰하는 동안 필요시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 교사의 개입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최소화하도록 유의하여 실행하였다.

3.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1) 母-兒 놀이활동 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 행동의 온정성과 민감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Rubin과 그의 동료들(1995)이 개발한 부모 온정과 통제 척도(Parental Warmth and Control Scale)를 권연희(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번안하였다.

본 척도의 일곱 가지 하위요인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보이는 즐거움과 기쁨의 정서 표현인 ‘긍정적 정서’, 걱정·두려움·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 화나 짜증을 표현하는 언어·비언어적 행동은 ‘적대적 정서’, 자녀의 요구에 얼마나 주의력 있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민감성’, 자녀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긍정적 통제 및 지도’, 자녀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부정적 통제’, 어머니가 비언어적 측면에서 자녀에게 집중함을 보여주는 자녀와의 거리는 ‘근접성’ 등으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행동을 촬영한 비디오 자료는 30초 단위로 관찰한 후,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한편, 본 척도의 관찰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구보조자인 석사 과정생 1인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 코딩에 관한 관찰자 훈련을 1주일간 실시한 후, 연구대상 어머니와 아동 쌍의 약 10%인 5쌍에 관한 비디오 자료를 임의로(random sampling)선정하

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각각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부호화하였다. 그 결과 백분율로 측정된 각 상호작용 행동별 관찰자간 일치도는 78~92%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역할 지각

(1) 양육 효능감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Gibaud-Wallston과 Ander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한 것이다. 이 척도는 부모 역할의 유능감과 부모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는 ‘부모로서의 유능감(9문항)’ 과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 역할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부모로서의 불안(4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Cronbach's α 로 측정된 각 요인별 신뢰도는 부모의 유능감은 .77이고,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79로 나타났다.

(2) 양육 즐거움

양육의 즐거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Fagot(1995)이 개발한 Pleasure In Parenting Scale(PIP)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1~3세의 자녀를 돌보는 일상적 상황, 예를 들면 ‘목욕시키기’, ‘놀이주기’에서의 부모의 즐거움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의 척도는 ‘아주 즐겁다’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의 7점 척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양육 즐거움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를 분석하여 신뢰도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문항 1개를 제외시킨 후, 남은 9개 문항의 Cronbach's α 는 .74이었다.

(3)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이 개발한 부모스트레스 단축 척도(PSI/SF)를 김민정(2008)이 수정·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부모의 고통(12문항)’, 자녀와의 부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한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측정된 각 요인별 신뢰도는 고통요인이 .77,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은 .80,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은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사용할 측정도구 및 프로그램 실시환경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아동학 석사과정의 보조 연구자 2명과 함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측정도구인 질문지 문항의 기술방식이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4명(남아 2명, 여아 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고,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어머니와 걸음마기 아동 24쌍을 대상으로 놀이상황에서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예비조사 이후 문항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은 수정하고 촬영방식과 카메라의 위치를 결정하는 등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 문항과 관찰상황을 확정하였다.

2) 관찰자 훈련과 교사훈련

본 연구자와 예비조사를 함께했던 아동학 석사과정의 보조 연구자 1명을 대상으로 시간표집법에 근거한 관찰자 훈련을 두 차례(총 10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모든 교사(총 4명)는 부모참여 놀이프로그램의 경력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교사들에게 교사용 매뉴얼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 운영방식에 대한 훈련을 시행하였다. 특히 실험집단의 교사들에게는 부모교육에 대한 교사용 안내서를 더 추가하고,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하였다.

3) 본 프로그램의 실시와 사전 사후검사

프로그램의 실시는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의 D, E, K, Y구에서 총 5그룹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각 그룹은 7쌍~12쌍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시간은 매주 한 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시간을 정하여 진행되었으며, 교육장소는 각 문화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교실이였다.

프로그램 실시 및 사전 사후 검사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본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사전, 사후 검사 시에 블럭 교구를 이용한 작은 움직임에 위한 놀이와 접이식 교구를 이용한 큰 움직임에 위한 놀이 상황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행동을 26분 동안 비디오로 촬영하고, 양육역할 지각과 관련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전 검사를 실시한 다음 주부터 실험집단에는 8회기의 부모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같은 내용의 8회기에 걸친 놀이 프로그램만 제공되었다. 본 프로그

램이 종료된 그 다음 주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관찰과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사전 사후 통제 집단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하였고,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SPSS/WIN 15.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타 인구학적 변인 및 연구 변인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카이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연구변인의 사전, 사후의 조사 시기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그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프로그램 실시 전 집단 간 차이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 및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가정되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통제 척도로 살펴본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점수, 그리고 양육효능감, 양육즐거움 및 양육스트레스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 처치 전 연구 변인들은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집단별 연구변인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

1) 어머니의 온정·통제적 상호작용 행동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은 실험집단의 경우, 긍정적 정서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t = -6.30$, $p < .001$), 그 다음으로는 부정적 통제가 감소하

<표 3>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별 평균의 차이 ($N = 47$)

집단(N)	하위요인	시기	M	SD	t
실험집단 (27)	긍정정서	사전	1.56	.35	-6.30***
		사후	1.97	.23	
	부정정서	사전	1.14	.16	1.75
		사후	1.08	.15	
	적대정서	사전	1.15	.08	2.69*
		사후	1.04	.02	
	민감성	사전	1.60	.32	-2.70*
		사후	1.67	.30	
	긍정통제	사전	1.42	.32	-2.54*
		사후	1.59	.42	
	부정통제	사전	1.24	.22	3.69**
		사후	1.10	.11	
근접성	사전	1.83	.41	.74	
	사후	1.79	.28		
통제집단 (20)	긍정정서	사전	1.61	.29	-.67
		사후	1.64	.33	
	부정정서	사전	1.11	.14	-.11
		사후	1.08	.15	
	적대정서	사전	1.20	.09	1.07
		사후	1.38	.07	
	민감성	사전	1.66	.23	.52
		사후	1.63	.20	
	긍정통제	사전	1.36	.16	-.23
		사후	1.36	.24	
	부정통제	사전	1.17	.11	.24
		사후	1.17	.14	
근접성	사전	1.72	.24	-2.25*	
	사후	1.78	.29		

* $p < .05$. ** $p < .01$. *** $p < .001$.

였으며($t = 3.69, p < .01$), 그 다음에는 민감성($t = -2.70, p < .05$)이 증가하였다. 또한 적대적 정서가 감소하는($t = 2.69, p < .05$) 반면, 긍정적 통제($t = -2.54, p < .05$)는 증가하였다. 한편, 부정적 정서와 근접성에서 평균값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는 근접성($t = -2.25, p < .05$)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3 참조).

2) 어머니의 양육 역할 지각

(1) 양육 효능감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유능감($t = -3.28, p < .01$)이 증가한 반면 불안요인($t = 2.75, p < .05$)은 감소하였다. 즉 부모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이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불안을 덜 느끼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통제집단의 경우는 유능감($t = -2.23, p < .05$)에서만 증가를 보였다(표 4).

<표 4> 양육 효능감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의 차이 (N = 47)

집단(M)	하위요인	시기	M	SD	t
실험집단 (27)	유능감	사전	22.07	2.74	-3.28**
		사후	23.40	2.04	
	불안	사전	17.48	3.30	
		사후	15.51	2.06	
통제집단 (20)	유능감	사전	21.90	3.75	-2.23*
		사후	22.85	3.67	
	불안	사전	15.95	3.17	
		사후	16.35	3.23	

* $p < .05$. ** $p < .01$.

(2) 양육 즐거움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 즐거움($t = -2.7, p < .05$)이 증가하였다. 즉 부모교육 이후 어머니들은 양육 즐거움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양육 즐거움이

<표 5> 양육 즐거움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의 차이 (N = 47)

집단(M)	하위요인	시기	M	SD	t
실험집단 (27)	즐거움	사전	31.56	5.54	-2.70*
		사후	33.74	4.56	
통제집단 (20)	즐거움	사전	32.40	3.86	-1.55
		사후	33.35	3.43	

* $p < .05$. ** $p < .01$.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3) 양육 스트레스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t = 2.43, p < .05$)와 역기능적 상호작용($t = 2.90, p < .01$)이 감소하여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는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등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표 6> 양육 스트레스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의 차이 (N = 47)

집단(M)	하위요인	시기	M	SD	t	
실험집단 (27)	고통	사전	34.15	5.55	2.43*	
		사후	32.56	5.05		
	역기능적 상호작용	사전	21.78	5.04		2.90**
		사후	19.74	4.44		
까다로움	사전	31.04	7.79	1.84		
	사후	28.52	3.77			
통제집단 (20)	고통	사전	35.75	6.35	-0.41	
		사후	36.10	5.99		
	역기능적 상호작용	사전	20.45	4.91		.97
		사후	19.80	4.75		
까다로움	사전	27.65	9.11	-0.76		
	사후	28.35	7.94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1.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는 걸음마기 영아를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양육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연구논문과 저서들을 기초로 걸음마기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역할과 관련한 아동발달 및 부모교육 이론의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걸음마기 자녀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 양육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긍정적 상호작용과 양육역할 지각을 증진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걸음마기 영아의 어머니를 주대상으로 하는 총 8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실시장소의 크기에 따라 걸음마기 자녀와 어머니 5~12쌍으로 구성된 놀이집단에서 매 회기 45분 동안 훈련된 교사에 의해 부모교육과 놀이에서의 상호작용 실습이 진행된다. 각 회기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에 따라 긍정적인 양육기술을 훈련하도록 하였는데, 프로그램의 전반부인 1~4회기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본 내용을 익히도록 하고, 후반부인 5~8회기에는 걸음마기 발달에 적합한 양육기술과 관련하여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놀이 그룹 속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걸음마기 영아가 어머니와 분리되기 어

려운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대상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교육의 내용을 놀이 상호작용 속에서 곧바로 실습해 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2.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모-아 놀이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과 양육역할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긍정적 통제, 민감성이 증가하였으며, 적대적 정서(화, 짜증, 분노)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표현(걱정, 실망)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한 결과는 Fielden과 그의 동료들(2008)의 ECE프로그램, Tiple-P 프로그램(Leung et al., 2003), COPEing with Toddler Behavior(Niccols., 2009) 등의 선행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의 영향으로 추측되기도 한다(권연희, 2003). 한편, 예상과 달리 통제집단에서도 접근성이 증가한 것도 사후검사를 위해 설치한 카메라를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역할 지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양육효능감, 양육즐거움 등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증가하고,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지각에서는 부분적인 감소만 보였다. 양육효능감에서 나타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본 프로그램이 걸음마기 발달에 적합한 내용으로 어머니가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훈련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유능감이 증가한 본 연구결과는 김진이(2006)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통제집단에서도 유능감의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의 경우 양육즐거움이 향상되었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놀이를 즐겁게 경험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므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일상에서도 엄마로서 즐겁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Bamba(200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그의 연구가 어머니만 참여하는 그룹형태의 부모교육이었던 반면 본 프로그램은 걸음마기 자녀와의 면대면 상황에서 놀이를 통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기쁨을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고통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만 감소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적 요인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단기성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율성과 활동성이 큰 걸음마기 영아 발달과업의 특성상 어머니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잘 드러낸 결과로도 해석된다(Belsky 외, 1996).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육아의 힘겨움을 나눌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서 긍정적 정서, 긍정적 통제, 민감성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고, 양육효능감이나 양육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인지도 증가하였다. 한편,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의 부정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인지 역시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의 긍정적인 부분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감소했다는 다른 연구결과(김정옥·구향숙, 2007)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양육행동 측면과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또는 지각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 부분으로의 변화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김민정, 2008). 따라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과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며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걸음마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관련한 사전 요구도 조사를 하였다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자신이 개발할 프로그램의 목표에 적합한 실태조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행의 모집단 선정과 실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다층면적인 연구설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이후 연구에선 추후검사(김진이, 2006; 박유나, 2005)를 실시하거나,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처럼 중재 대상에 따라 실험집단을 둘로 나누고

통제집단 이외에 아무처치도 하지 않은 일반집단도 동시에 비교하는 등의 실험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부모교육을 계획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유용했지만 자녀와 동행한 상황에서 깊은 내용을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과 예산이 허락된다면 본 프로그램을 어머니만 참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부모교육을 받는 동안 친숙한 성인인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은 걸음마기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걸음마기가 부모교육의 적기이면서도 자녀의 발달적 특성상 부모교육이 행해지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설계였다. 둘째,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위해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즉각적인 실습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교육이 이론이나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고치기보다는 어머니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하여 양육기술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둔 예방적 접근이다. 이로써 걸음마기 양육현실에서 긍정적인 지각과 행동을 향상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넷째, 본 연구는 어머니 참여 놀이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어머니 참여 놀이 프로그램에서 부모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걸음마기 부모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프로그램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강가정센터, 보육정보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문화센터의 걸음마기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민정(2008). 공격적 유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 사회적 기술 훈련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옥 · 구향숙(2007).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13-125.
- 김진이(2006). 유아의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UPEM)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효진(2005).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프로그램이 영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원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궁혜영(2001). 백화점 문화센터의 아동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 · 이선희 · 이유리 · 김경미 · 최규리 · 강나현(2009).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 : 그 실태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30(3), 127-143.
- 박성연 · 신영아(2006).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 아동의 성,연령, 기질, 어머니의

- 양육태도 및 요구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 회지**, 45(6), 11-20.
- 박성연 · 유은희 · 한상미(2002). **무한한 가능성을 위한 첫 출발**. 서울: 교문사.
- 박유나(2005). 유아기 아동을 위한 수줍음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성숙(2006). 걸음마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경북전문대학교 논문집**, 24, 33-54.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이상희(2003). **母-兒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 · 김은기(2000). '엄마와 함께 하는 영아 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 관계 및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3), 67-84.
- 정의영(2003). 영아 조기교육의 실태 및 어머니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세영 · 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SF)*.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ngold, A., & Egger, H. L. (2007). Preschool psychopathology : Lessons for the lifespa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 961-966.
- Bamba, M. L. (2000). Evaluating the impact of parent education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Belsky, J., Woodworth. S., & Crnic. K. (1996). Trouble in the Second Year : Three Questions about Family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7, 556-578.
- Bloom, B.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 Wiley.
- Bowdoin, R. (2000). **보드윈 자녀교육 시리즈**. 서울: 웅진닷컴.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oks-Gunn, J. (2004). *Intervention and policy as change agents for young children*. In P. L. Chase-Lansdale, K. Klernan, & R.J. Friedman (Eds.), *Human development across lives and generations : The potential for change* (pp. 293-34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bell, D., & Palm, G.(2004). *Group parent education : Promoting parent learning and support*. Thousand Oaks, CA : Sage.
- Dishion, T. J., & Stormshak, E. (2007). *Intervening in children's lives : An ecological, family-centered approach to mental health care*. Washington, DC : APA Books.
- Dreikurs, R., Grunwald, B. B., & Pepper, F. C. (1998). *Maintaining sanity in the classroom : Classroom management techniques* (2nd ed.). Philadelphia : Taylor & Francis.
- Dumaret, Kuntz, & Titran (2009). Early Intervention in poor families confronted with alcohol abuse and violence : Impact on families' social intergration and parenting. *Paru dans families in society*, 90(1), 11-17.
- Farquahar, S. (2003). *Parents as First Teachers. A study of the New Zealand PAFT program*. Child Forum Research, Wellington, Newzealand.
- Fielden, J. M., & Gallagher, L. M. (2008). Building social capital in first-time parents through a group-parenting program : A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 406-417.
- Fogot, B. I. (1995). Development of a Pleasure in Parenting Scale.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4, 75-82.
- Frick, P. J. (2001). Effective interventi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6, 596-608.
- Ginott, H. G. (1969). *Between parent & teenager*. New York : Avon.
- Gordon, T. (198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A preventive program and its effects on families*. In M. J. Fine (Eds.).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pp. 101-121). New York : Academic Press.
- Keenan, K., & Wakschlag, L. S. (2000). More than the terrible twos : The nature and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 in clinic-referred preschool child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33-46.
- Kochanska, G., Tjebkes, T. L., & Forman, D. R. (1998). Children's emerging regulation of conduct : Restraint, compliance, and internalization from infancy to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69, 1378-1389.
- Larzelere, E. M., Amberson, A. J., & Martin, G. T. (1992). Age Differences in Perceived Discipline Problems From 9 to 48 Months. *Family Relations*, 41, 192-199.
- Leung, C., Sanders, M. R., Leung, S., Mak, R., & Lau, J. (2003). An outcome of the implementation of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in Hong Kong. *Family Process*, 42(4), 531-544.
- Niccols, A. (2009). Immediate and short-term outcomes of the 'COPEing with Toddler Behavior' parenting group.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5), 617-626.
- Owen, M., & Mulvihill, B. (1994). Benefits of a parent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Family Matters*, 43(2), 207-213.
- Petersson, C. (2003). General Parental Education In Sweden :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Scandinavian Journal of Primary Health Care*, 21(1), 43-46.
- Rubin, K., Stewart, S. L.,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p. 255-284). NJ : Erlbaum.
- Schaack, A. M. (2009). Effectiveness of a treatment program for toddlers with behavior problems and developmental delays in low-income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Marquette University.
- Wagner, M., Spiker, D., & Linn, M. (2002).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s as teachers program with low-income parents and childre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2(2), 67-83.

2010년 10월 31일 투고, 2011년 1월 7일 수정
2011년 1월 11일 채택